

## “나의 삶과 꿈”

-돈 끼호떼와 오뒷세우스를 생각하며-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821643 윤이수

30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 편의 시가 된다는 것. (The powerful play goes on, and you may contribute a verse.)”

많은 이들의 지침서가 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말과 생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하  
는 존 키팅 선생님이 전해준 월트 휘트먼 (Walt Whitman/ 1819~1892.)의 시 일부인 이 구  
절을 늘 마음속에 품고 다니곤 한다. 시를 접한 그 순간부터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면, 누  
군가에게 위로가 받고 싶을 때면 한 번씩 꺼내어 보고는 생각을 정리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시를 접한 뒤로부터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돌아보려는 노력을 하  
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내 인문학의 시작은 『죽은 시인의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를 통  
해 인생의 정답을 찾았다는 것 보다는 정답을 알아가는 길에 발을 내딛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  
이다. 대학이라는 갈림길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중이다. 포기를 모르는 ‘돈끼호떼’와 ‘오뒷세  
우스’가 말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꿈에 다가갔던 것처럼, 한 편의 시가 되어 화려한 연극을  
채워 나갈 것이라는 나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기 위해 지금 출발점에서 발을  
내딛고자 한다.

수업 첫 날, 평소 하늘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여쭙어 보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  
다. 그 전 날 하늘이 맑고, 별이 밝아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끌어안고 평소  
보다 오래 시간 하늘을 보며 상상의 나라를 펼쳤었는데, 어쩌면 내게 생생한 것은 -무엇이 두  
려웠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 질문에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던 나일지도 모른다.

하늘, 하늘이 머금은 갖은 의미들을 파악하려던, 아니 하늘이 품은 것들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자 했던 많은 예술 문학가들의 글들이 문득 생각난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고향을  
떠올리며 반성하던 윤동주의 시처럼,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중 가장 아름다운 별이 내려 앉아  
잠들었다 말하던 알폰스 도데의 소설처럼, 달이 떴다고 전화를 걸어 달빛에 연정을 실어 보내  
는 김용택의 시처럼 다양하고도 풍부한 것들을 담은 하늘을 유심히 살피게 된다. 하늘을 바라  
본다는 행위는 단순히 하늘의 별을 헤아리는데 멈추지 않는다. 하늘을 보는 것은 그 시간, 공  
간, 온기 등 모든 것을 도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건네는 행위이다. 돈 끼호떼의 하늘에는 무엇  
이 있었으며, 오뒷세우스의 하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공상이라 비난받고 어리석은 도전이라  
평가받은 그들이 바라보는 하늘과 꿈꾸는 내가 바라보는 하늘은 다를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늘 속 길잡이가 되어줄 복두칠성인 ‘인문학’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었다. 인문  
학(人文學)을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인간의 문학, 예술, 철학, 역사 등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돈 끼호떼와 오뒷세우스를 통해 본 모든 것들을 인문학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그 속에 녹은 정의, 사랑 등이 오히려 인문학을 설명하는 옳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자신을 바로 보고, 그러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만든 인문학의 지표이다.

돈 끼호떼가 삶에 녹여낸 것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사랑'일 것이다. 그의 사랑의 대상은 이제 '돈 끼호떼'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엘 포보소의 '둘시네아'와 본인 스스로를 믿는 그, 돈 끼호떼이다. 그가 맹목적으로 사랑이라 믿어 만들어낸 허상, 허구적 인물인 둘시네아는 그에게 단순히 사랑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다. 그에게 둘시네아는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인생의 목표, 삶의 이유이다. 사랑이 삶의 목표가 되는 낭만적인 인간이 바로 '돈 끼호떼'이다. 메마르고 척박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 없는 삶을 살았던가. 에리히 프롬 (Erich Pinchas Fromm)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는 그대가 필요하다.'인데, 돈 끼호떼에게 둘시네아는 그러한 성숙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성숙한 사랑의 대상, 책을 읽었다면 누구든 둘시네아가 그 대상임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한 번 더 주목해보고 싶었던 것은 뻔뻔하고 무모할 정도로 그려진 돈 끼호떼 본인에 대한 사랑, 즉,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곧 자존감과 연결된다. 최근 들어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 기술, 눈을 뜰 때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을 볼 때면 신기루인가 싶다가도 너무나도 현실적인 모습들에 놀람을 감추지 못하곤 했다. 영화로만 만났던 그 시대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눈앞에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자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그 양면의 감정이 낫설기도 했다.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나타난 초석처럼 내가 모르는 비밀이 어딘가 실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다.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인공지능 '할(HAL)'의 반란은 어디선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는 나의 불안을 증대시키기도 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양산의 발전을 이뤄온 과학의 기술들 속에서 '나'라는 자리에 어떠한 로봇, 기계가 들어와 대체하더라도 세상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기도 했다. 어쩌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이렇게나 세상이 좋아진다."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에도 지치는 이 사회에서의 계속된 발전은 우리의 몸을 편하게,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양면의 상태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당장 내게 닥친 가장 큰 불안의 원인은 '대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출발함에 있어 다가오는 책임감, 중압감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밀려오는 이런 저런 많은 고민들이 매한가지였다. 오히려 많은 정보들을 얻고 지식을 쌓으면서 바라보는 시야는 넓어지나 나는 작아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자신을 믿고 의기양양하여 모험을 떠나는 돈 끼호떼의 두려움 없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나는 구석으로 파고들기만 한 것이었다.

본래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새로운 공간에서의 출발이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학창시절의 나는 분명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스스로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학교는 나의 우주였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나의 지구, 별, 위성들은 예쁘게 반짝였다. 나는 내가 속한 공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소중한 감정을 선물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이유, 그 때의 나는 그랬다. 봄과 여름 사이에 내리는 연한 비처럼 사람들을 흠뻑 적셔 서로의 높은 담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이리 저리 뛰어다니던 내 모습을 떠올리면 어쩌면 허상인 둘시네아를 좇는 돈 끼호떼처럼 무모해 보였을 지도 모르겠다. 많이 다치기도 다쳤지만 다양한 자리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앞서겠다고 베투

대는 나는 아마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께도 그렇게 비추어졌을 것이다. 반짝이던 나만의 위성들이 많아지면서 떠나가는 것들도 생겨났을 때, 처음 맞는 상처에 아파했고 그를 극복하기도 어려웠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도 없는 비난에 의한 아픔은 곧 일상이 되었다. 내 상처를 보지도 않고 남에게 내 것을 주는 삶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갔다.

그러던 내가 대학생이 되자,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에 지레 겁을 먹었다. 달라진 환경을 준비하며 나를 오롯이 보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살피게 되었다. 더 이상 아프기 싫어서일까, 아니면 상처를 받은 것보다 그를 치료해주던 따스한 손길이 많았던 지난 시간 행복한 경험들이 너무나 소중한 지금은 추억으로만 마주하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생겨서일까.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감정들이 뒤섞여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곤 했다. 그 기억들을 헤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모든 것을 해낼 자신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 곧 난 나의 모든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귀를 막았다.

대학교에 지원서를 넣을 때보다, 합격을 확인하고 나서 더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 건네 보았다. 내가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언급했던 성숙한 사랑, 이 시대에 이 순간에 머무는 나의 사랑은 과연 인과관계가 명확히 이루어져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상황이라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사랑한 것은 자신감이 넘치는 그 모습의 나였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자기에 강하다고 했던 것은 일면의 부분만이 아니었을까 라는 회의감과 함께 말이다. 내가 나를 타인과 비교하고 평가하며 가라앉기 시작했던 바로 그 때, 그런 내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준 것이 바로 '돈 끼호떼'였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대범함과 찐초를 설득해 함께 여정을 떠나는 모습까지도 가히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상하게만 바라봤던 그 인물에게 애정이 갔던 순간이다. 남에게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뜻을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어쩌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이기적인 인물이라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인간이 살면서 자신의 기준이 자기라는 사실이 그렇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냐 라는 반문을 던지며, 나는 내가 스스로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돈 끼호떼'라는 인물을 통해 찾아갔다. 이 모습도, 저 모습도 다 나인데 남의 시선이 뭐 중요한가 싶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또 어지러운 와중에도 나는 또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 아니, 사랑을 하고자 한다. 이 모든 사랑에 대한 후회나 미련은 없다.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던 시간들이 있었다. 돌이켜 보면 이기주 작가가 말했듯 삶이, 사랑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러하다. 자음 몇 가지의 차이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 이 세 단어를 묶어 굳이 에로스 적 사랑, 아가페 적 사랑으로 연결 짓지 않더라도 무언가에 몰두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사랑은 사람이 되어 삶을 만들어 간다. 결국 우리는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닐지라도 나의 일, 나의 하루와 같은 추상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모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내 곁에도 애증의 형태로, 혹은 의무가 되어 부담으로 변한 형태로 변해버린 사랑을 인지하지 못해 드러나는 부조화의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내

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한 고찰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온 내 꿈을 위해 멀고 먼 돌아가는 길을 택한 내게 주어진 모험을 떠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역시도 사랑이다. 어찌 되었든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해 준비했고 한 걸음 다가가는 중이다.

나의 꿈은 '박물관',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박물관'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분류된 '나'라는 박물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돌고 돌아가는 이 길을 택하게 된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내 전시품이 될 국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스스로 습득해 나가야 하기에 그 길이 험함을 지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쪽 펼쳐진 가시밭길 역시도 눈에 선하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걱정, 번뇌와 번민으로 가득 차 입학할 준비하던 나를 떠올려본다. 그리할지라도,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게 다가가 말해주고 싶다. '돌아가는 이 길이 조금 느리면 어떤가,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와 같이 돌아가는 이 길을 통해 길가에 핀 꽃의 향기를, 앞서 걸어간 자의 발자국을 한 번 더 살펴보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사람들에게 더욱 풍부한 전시품을 체험하게 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라는 확신의 말을. 그 옛날 신의 뜻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새 운명을 개척해 나간 오뒷세우스가 보여주었듯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하며 말이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나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라는 말로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냥 또 다시 처음을 만들어나가는 것인데 왜 그리 걱정하냐는 가벼운 타박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두려움의 감정은 눈치도 없이 고개를 내밀며 찾아오기도 한다. '나 사랑하기'를 다시 시작하는 서툰 나와 달리 앞서 달려가는, 너무도 뛰어나게만 느껴지는 주변인들과의 비교로 혼자 굶아가는 상황에서도 그렇다. 또 남을 싫어하기 싫어 자신을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는 날 둘러싼 시간들로 방향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마저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에 답답함이 앞서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찬찬히 살펴보니 않아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던 내가 그렇게나 당당했던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넘어진 길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던 힘을 준 것은 바로 나에게도 오랜 시간 존재해 온 이타케였다. 오뒷세우스의 이타케는 멀고 험한 여정에도 그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 에우뤼클레이아, 에우마이오스 등이 살아있는 꿈의 고향이다. 오뒷세우스가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해 모험을 떠날 수 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를 믿고 기다린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세이돈이 흔들고 제우스가 외면했어도 늘 편이 되어준 아테네도 이타케의 일부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추울 때 너를 만나  
나를 꽃으로 대해 준 네가 고맙다  
많이 밝힌 여정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시선  
너를 만남으로 나를 새롭게 만난다

인생이 추울 때 너를 만나  
나를 꽃으로 대해 준 네가 고맙다

내게도 나를 꽃으로 대해준, 그래서 새로운 나를 만나게 한 그런 '이타케'가 있다. 매섭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아무리 흔들려도 든든한 뿌리가 되어 나를 잡아준 사람들이 있다. '관계'로 이루어진 나의 이타케. 초반에 언급한 나의 인문학 지표는 여기서 만들어진다. 유독 한 음절의 차이만 눈에 두드러지게 들어오는 인(人)과 인간(人間)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 인간(人間)은 인(人)이 담지 못한 것들, 차마 다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담는다. 광범위한 사랑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사람(人)이 사람(人)을 만나 관계(間)를 맺어가는 것 나의 이타케는 '인'이 아닌 내 곁에서 믿고 기다려준, 그래서 나를 새로이 만들어준 '인간'이다. 그래서 꿈 한편에 언제나 나의 이타케가 되어준 그 사람들이 자리할 공간을 마련한다. 이타케로부터 힘을 얻고, 또 힘을 주기도 하며 휴식 공간, 체험 활동이 가득한 그런 풍부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나선다. 여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준비해보고자 한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버리고 지금 순간에 충실하며 차근차근 다져나갈 것이다. 곁에 있으면서도 늘 그리운 소중한 이타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누군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는데 나는 그들의 '존재'를 살필 때 가장 행복했다. 인간의 존재 상대가 힘들었다는 그는 사람과 사랑, 삶이 의무가 되어 버거웠던 것은 아닐까. 그는 아마 인간이 아닌 인(人)만을 마주했을 것이다. 무거운 짐처럼 남아버린 그래서 허공에 날려 보낼 수도 없던 사람들을 말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지금, '하늘을 얼마나 보나?'라는 질문을 다시 받게 된다면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주 봅니다.'라고 웃으며 답할 것이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하늘을 보며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나의 의미'를 건네곤 한다며 말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끝없이 지나가는 시간과 흐르는 세월이 모든 추억과 괴로움을 덮을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오는 사건들을 예측할 수도 없는 나약한 사람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럴 때면 하늘을 살필 것이다. 모든 것들이 휩쓸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하늘을.

## “너의 시는 어떤 것이 될까? (of your verse be?)”

박물관이라는 시가 되어 나의 연극을 채워 나갈 것이라는 나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 막, 출발점에서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몸소 보인 돈 끼호테와 오뒷세우스처럼 나도 스스로를 돕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꿈이 담긴 발자국을 모아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두 인물을 보며 지금까지의 날들이 얼마나 굴곡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작을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 같았다. 다만, 넘어지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며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깨달았다.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청춘, 지나온 날보다 다가올 날들이 기대되는 것이 청춘이니까. 꿈을 꾸며 내딛는 발걸음이 삶으로 이어질 바로 그 청춘이니까. 그 청춘의 시기에 내가 있다.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나는 내 청춘의 찬란함을 믿는다.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을 내 청춘의 찬란함을 믿는다.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청춘이길, 조그만 감정에도 가슴 뛰는 청춘이길, 커다란 감정에도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청춘이길. 그러한 나의 청춘이 모여 하나의 박물관을 이뤄내길 간절히 바라본다.